

전원경

1900년대 초반, 불안한 세기말을 지남 유럽인들은 전에 없이 느긋하게 현재를 즐기고 있었다. 1870년의 보불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40년 이상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는 중이었다. 1850년대 이후 경제는 계속 호황이었고, 독일과 이탈리아 통일 이후 각 나라의 정치 상황은 별문제가 없어 보였으며,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 덕에 일상의 생활은 전에 없이 편리해진 상태였다.

세기말이 지나고 20세기가 문을 열자 화가들은 보다 진취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인 세계로 온몸을 던졌다.

몽마르트르 언덕, 아틀리에 '세탁선'에 자리 잡은 파블로 피카소(1881-1973)는 이즈음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있었다. 1904년에 고향 스페인을 떠나 파리로 이주한 그는 이미 파리의 외국인 예술가들은 물론이고,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화가였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파리 정주 초창기를 반영한 청색 시대(1901-1904), 페르낭트 올리비에와 연애했던 젊음을 만끽하던 장미 시대(1904-1906)에 이어 1906년경부터 피카소는 입체파의 시대로 들어섰다.

현대 미술의 문을 연 작품으로 평가되는 <아비뇰의 처녀들>을 그리기 위해 피카소는 거의 한 해 동안 무수한 스케치를 남겼다. 그가 1906년에 그린 <아비뇰의 처녀들>을 위한 습작들만 해도 809점에 달한다. 이것은 그때까지의 미술에 반기를 든,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었다. 등장인물들의 포즈와 얼굴은 인간이 그대로 따라 할 수 없는, 선과 면으로 분할된 모습이며 오른편의 처녀들은 아프리카의 가면들 연상시키는 얼굴들이다.

<아비뇰의 처녀들>을 통해 피카소는 이제 미술이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시대가 저물었으며, 대상이 아니라 예술가의 마음속에 떠오른 관념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시대가 왔음을

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시티대학교 런던(City University London)에서 예술비평 전공으로 석사를, 글라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에서 문화컨텐츠산업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객석』, 『주간동아』 기자로 일했으며 예술 3부작 시리즈인 『예술, 역사를 만들다』, 『예술, 도시를 만나다』, 『예술, 인간을 말하다』를 비롯해서 『페르메이르』, 『클림트』, 『런던 미술관 산책』 등 예술과 문화사에 관련된 11권의 책을 썼다.

선언했다. 그것은 바로 20세기 현대 예술이 가져야 할 새롭고 독창적인 세계에 대한 선언이었다. 입체파는 화가들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데' 르네상스 시대 이후 500년간 계속된 그림의 원칙에서 벗어났음을 알리는 최초의 성과이기도 했다. 마치 기하학의 세계를 미술에 도입한 듯한 입체파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젊은 예술가들은 피카소와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 또는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곧 유럽 각지에서 새로운 예술 운동, 즉 '아방가르드'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비슷한 시기에 파리에서 활동하던 앙리 마티스(1869-1954)는 색채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있었다. 마티스의 <붉은 조화>를 보면 이 화가가 색채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근법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오직 색채, 특히 원색을 통해서 조화와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아라베스크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꽃무늬 장식이 식탁보와 벽지에서 겹쳐 나타나고 창밖의 녹색 잔디밭 역시 자연이라기보다는 장식의 일부처럼 보인다. 마티스가 강조한 것은 장면의 묘사가 아니라 장면의 분위기에 대한 표현이었다. 바로 이 부분, 묘사보다 표현이 앞선다는 점에서 마티스의 야수파와 피카소의 입체파는 접점을 찾는다. 그러나 마티스는 피카소처럼 완전히 형태를 해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피카소에 비하면 덜 급진적으로 보인다. 마티스는 20세기의 화가인 동시에 19세기에 빛을 진 화가이기도 하다. 특히 그의 작품은 후기 인상주의의 고갱이 끝나는 부분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독일의 앞날을 예언한 화가들

20세기 초반 화가들이 저마다 내세운 아방가르드적 경향을 살펴보면 하나의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조금은 무리한 연결 고리일지는 모르나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 또는 각

국가의 민족성과 연관된 경향들이 유럽 각지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야수파나 입체파처럼 프랑스에서 태어난 경향들이 그리 위태로운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비해 베를린과 드레스덴에서 등장한 다리파는 한층 불안한 눈으로 앞날을 바라본다. 에른스트 키르히너(1880-1938)가 주도한 다리파의 본거지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었다는 사실은 실로 의미심장하다. 제국의 수도에서 이들이 본 것은 급격한 도시의 팽창과 그 속에서 점차 파편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키르히너가 그린 <베를린 거리 풍경>에는 흑백의 거리 군중들 그리고 그 사이를 마치 공작새처럼 차려입고 활보하는 매춘부들이 등장한다. 도시는 어둡고 거친 모습이며 사람들의 형태는 기이하게 늘어나 있다.

1911년에 결성된 다리파는 1913년 베를린에서 해체되었다. 베를린 전시회의 포스터에 키르히너가 자신의 모습을 왕처럼 그려 넣었기 때문이었다. 슈미트로틀루프와 헤켈은 키르히너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러나 이 2년 동안 다리파가 보여 준 거칠고 감정적인 형태와 색채들은 독일 표현주의의 선구가 되었다. 피카소가 20세기 프랑스 미술로 향하는 문을 연 장본인이라면, 불과 2년밖에 존재하지 못했던 다리파는 독일 현대 미술의 입구가 되었다. 그들이 도시에서 본 것, 거칠고 공격적인 대도시의 인상 그대로 독일은 곧 전 유럽을 향해 충구를 돌리게 된다. 다리파 화가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조국의 미래를 예언한 셈이 되었다.

베를린의 화가들이 본 암울한 도시의 모습에 비해서 같은 독일이라 해도 남부 뮌헨의 화가들은 한층 명랑하고 낙관적인 모습이었다. 모스크바에서 법학을 공부하다 돌연 미술로 방향을 틀어 뮌헨으로 온 명석한 러시아인 바실리 칸딘스키(1866-1944)는 독일의 동료들과 함께 1911년 뮌헨에서 청기사파를 결성하고 잡지 『청기사』를 발행한다. 1911년은 드레스덴에서 다리파가 결성된 바로 그해였다.

‘청기사파’라는 다소 난해한 이름은 새로운 예술의 상징으로 칸딘스키가 진취적인 청색을, 그리고 또 한 명의 주도자 프란츠 마르크(1880-1916)가 말의 역동성을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남부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들은 베를린의 화가들보다 한층 더 낙관적이었으며, 이러한 낙관성은 그들의 작품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아우구스트 마케(1887-1914)의 그림 속 마을과 집들은 꿈에서 본 풍경처럼 안온하고 아련하며, 마르크가 그린 역동적인 모습의 말들은 금방이라도 푸른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 같다.

청기사파는 이름이 보여주듯 무엇보다도 색채가 중요시된 운동이었다. 마르크가 그린 푸른 말들의 색감은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난다. 베를린의 화가들이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을 헤맬 때 뮌헨의 화가들은 순수한 이상과 푸른빛으로 빛나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다리파가 고통을 표현할 때 청기사파는 자연을 바라보았으며 그림을 통해 외부 세계와의 화해를 시도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젊은이다운, 그리고 순진한 꿈이었다.

보수와 관능의 충돌, <<살로메>>

새로운 세기의 물결은 음악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었다. 독일 출신으로 뮌헨과 베를린 왕궁 지휘자로 활동하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가 1905년에 발표한 오페라 <<살로메>>는 초연 직후부터 환호와 논쟁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오스카 와일드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한 이 오페라는 슈트라우스가 세 번째로 완성한 오페라였다. 1905년 당시 슈트라우스는 이미 교향시 작곡가로서는 성가를 높인 상태였으나 오페라로서는 아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성경의 잘 알려진 에피소드를 줄거리로 하고 있으면서도 감각적인 면모를 전면부에 부각시킨, 음악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대단히 파격적인 이 작품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던 청중의 심리를 확실하게 충족시킬 만했다.
특히 살로메의 노골적 유혹을 물리치는 요한의 가창과
어울리는 밀도 짙은 관현악은 세기말적인 관능과 탐미적인
시선을 모두 갖추고 있다. 드레스덴 초연에서 작곡가는
서른여덟 번의 커튼콜을 받았다.

20세기 초는 확실히 새로움이 넘치던 시기이자 여기저기에서
천재들이 별처럼 빛나던 시기였다. 미술, 음악, 발레를
막론하고 예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작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했다. 새로운 예술이 마치 소나기처럼
대중에게 쏟아졌고 대중은 아방가르드 예술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즐거운 천재들의 시기는 10년을 채
가지 못했다. '천재들의 시간'의 끄트머리였던 1913년에
등장한 작품들은 이 잔치가 끝나감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불안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먹구름처럼
드리우던 1914년 6월 28일, 발칸 반도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청년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삼시간에 전 유럽은 전쟁의 불길 속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 녹음할 수 없습니다.